

중국, 제조경기 7개월 연속 하락

HSBC, 4월 PMI 49.3으로 0.6포인트 하락 ... 유동성 완화 주문

중국의 제조업이 7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HSBC은행이 5월24일 발표했다.

HSBC는 공장 생산량을 의미하는 구매관리지수 예비치(PMI)가 4월 49.3으로 3월의 49.9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PMI가 50을 넘으면 팽창을, 50 이하이면 축소를 뜻한다.

HSBC는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로 기존의 인프라 투자와 유동성 완화책 외에도 성장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더 많은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성장을 이루기 위한 완화책이 확산되면 하반기에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불안정으로 2012년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책정해 2011년 9.2% 및 2010년 10.4%에 비해 크게 낮추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24>